



“풍년·무병장수 깃들게 하소서” 정월 대보름을 나을 앞둔 18일 밤 함평군 월야면 달맞이공원에서 마을 청년들이 한 해의 풍년과 가족들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며 쥐불놀이를 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15 해질 18:18
일출 15:07 일몰 04:27

아침 안개주의
밤에 내륙과 일부 서해안에 비가 내리겠다.
◇지역별 날씨(℃)
광주 차차흐림 1/11 보성 차차흐림 -2/11
목포 차차흐림 2/10 순천 차차흐림 2/12
여수 차차흐림 5/10 영광 차차흐림 0/11
나주 차차흐림 -1/12 진도 차차흐림 1/11
완도 차차흐림 2/12 전주 차차흐림 1/10
구례 차차흐림 -2/12 군산 차차흐림 1/9
강진 차차흐림 0/12 남원 차차흐림 -2/11
해남 차차흐림 -1/11 옥산도 차차흐림 4/8
장성 차차흐림 -2/11

◇바다 날씨
서해 앞바다 북서~북 0.5~1.5 북~북동 0.5~1.0
남해 앞바다 북서~북 1.0~2.5 북~북동 0.5~1.5
남해 서해 앞바다 서~북서 0.5~1.0 남동~남 0.5~1.0
남해 서해 앞바다(동) 서~북서 0.5~1.5 남동~남 0.5~1.5
남해 서해 앞바다(서) 북서~북 1.0~1.5 북~북동 1.0~1.5
◇생황지수
체감온도 관심
동파 낮음
뇌졸중 높음
◇주간 날씨
20(토) 21(일) 22(월) 23(화) 24(수) 25(목) 26(금)
3/10 -2/6 -1/5 -1/8 -2/8 -1/8 0/8

장만채 “정부-교육청 누리예산 분담하자”

〈전남도교육감〉

“정부에서 절반이상 내고 교육청도 고통 분담”
“조금씩 양보하자” 예산 갈등 속 타협안 제시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이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부담과 관련, ‘보육대란’ 해결을 위한 고통 분담을 정부에 제안했다. ‘누리과정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국가 책임’이라는 데 변함이 없지만 “정부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는 대신, 예산을 분담할 의향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 교육감은 18일 기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누리과정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에서 50%나 3분의 2를 내고 교육청도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누리과정은 대통령의 공약사업’인 만큼 정부가 근본적으로 책임을 지되 100% 책임

을 주장하기보다 학부모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서로 조금씩 양보하자는 취지다.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 부담 주체임을 재차 밝히면서도 교육청이 일정 부분 분담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전남도교육청은 지난달 정부의 목적에 비비 지원 전에도 “다른 도시 지역과 달리, 전남의 경우 유치원·어린이집이 문을 닫게 되면 대안 시설이 없어 학부모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점을 내세워 조·중등 평가지원금 81억원까지 보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우선 편성한 바 있다.

장만채 교육감은 “조·중등 교육에 써야 할 돈을 우선 편성하는 등 할 수 있는 만큼 했다”, “선출직 교육감을 상대로 압박해 풀 문제가 아니다”고도 했다. 더 이상 떠넘기지 말고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얘기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장 교육감은 이밖에 소규모 학교 통폐합과 관련, “학교가 없으면 도서 지역은

무인도가 된다”면서 “섬을 지키려면 학교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 전임자 복귀 문제와 관련해서는 “보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보호할 것”이라며 “하지만 제 선을 넘는 것은 보호할 수 없다, 전교조 사무실은 계약기간까지는 임대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윤기자 dok2000@kwangju.co.kr

전남도교육청 교장·교감 361명 인사

전남도교육청은 교장·교감 등 361명에 대한 인사를 18일 단행했다.〈명단 22면〉 이번 인사로 교장·원장 185명이 승진·전보 임용됐고 교감·원감 106명도 승진·전보 등으로 자리를 옮겼다. 장학관·교육연구관 22명과 장학사·교육연구사 48명

도 각각 승진·전직·전보 임용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반으로 학교의 긍정적 변화를 안정적으로 추구할 수 있도록 했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김지윤기자 dok2000@kwangju.co.kr

비에 가려...정월대보름달 보기 어려울 듯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아쉽게도 정월 대보름(22일·음력 1월15일) 보름달을 보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22일 광주·전남지역은 남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오후에 전남 남해안부터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또 비가 내리지 않는 그 밖의 지역에서도 고도 3km 이하에서 다소 두터운 구름대가 유입돼 정월대보름달을 보기 어려운 곳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기압골의 이동속도와 발달 정도에 따라 보름달 관측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정월대보름달은 광주에서는 오후 5시 58분께 떠올라 다음날 오전 7시13분께 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광주·전남지역은 22일까지 큰 추위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에는 북서쪽에서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찬 기류가 유입되고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면서 일시적으로 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경민기자 kki@

조선대 인문계 정원 300명 이공계 전환 확정

‘프라임 사업 계획’ 당초 계획안대로...통폐합 학과 반발

조선대가 중장기 산업 수요에 맞춘 구조 조정 방안을 확정하고 ‘체질 개선’을 본격화한다. 조선대는 19일 오후 2시 총장을 비롯, 단과대 학장, 대학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교무위원회를 열고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사업’(PRIME 사업) 추진을 위한 학교 구조 조정 방안을 확정한다.

조선대는 사회 수요에 맞춰 학과와 정원을 전면 개편, 정부의 ‘사회 수요 선도대학’(대형)에 선정되겠다는 구상이다. 이렇게 되면 매년 150억원씩 3년간 450억원을 지원받으며 안정적으로 체질 개선을 할 수 있는 만큼 미래 대학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것이다. 조선대가 이날 확정하는 구조조정안은

공대와 ICT 융합대학, 사범·의학계열을 제외한 나머지 전 계열 정원의 13% 수준인 300여명을 공대와 ICT 융합대학으로 돌려 사회 수요에 맞는 인력을 배출하는 게 핵심이다. 조선대는 이 과정에서 자체 학과 평가 결과를 토대로 상위 20% 이내에 포함된 학과의 경우 정원의 10%를, 하위 10% 이내 학과는 정원을 15%까지 감축하고 그만큼 이공계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조선대는 “개혁안 초안을 마련한 뒤 단과대별 의견 수렴 및 서면 이의신청을 받고 대학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 총학생회 설명회, 단과대학장 간담회 등을 거쳐 점진적으로 의견을 조율해왔다”는 입장이다. 19일 최종안을 확정하고 사업 유지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가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사회과학대가 전체 교수들 명의로 학교측이 내놓은 프라임사업안을 반대하는 결의서를 내놓는 등 학과 통폐합을 놓고 인문대·외국어대·법대·사회대 반발이 여전히 19일 최종안 확정 여부에 대한 부정적 의견도 나온다. /김지윤기자 dok2000@kwangju.co.kr

지역공공정책 플랫폼 ‘광주路’ 창립대회

21일 5·18자유공원

지역의 30~40대 젊은 연구자와 시민 사회 활동가들이 주축인 ‘지역공공정책 플랫폼 광주路’가 21일 오후 2시 광주시 서구 치평동 5·18자유공원 자유관에서 창립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는 설립 추진위원회 회원, 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창립멤버로는 운영덕(전남대 5·18연구소 연구교수) 설립추진위원장 등 30~40대 중심의 연구자,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의사, 변호사, 세무사, 공무원,

지역업자 등 72명의 추진위원들이 참여하며, 이들은 1억5000여만원의 창립기금을 약속했다. ‘광주路’는 광주의 ‘길’을 의미하고, 광주로 모이고, 광주와 더불어 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지역의 공공정책 강화, 지역혁신역량 구축, 지역사회의 경영을 책임지는 공공영역의 인재 육성 등을 통해 광주 공동체의 새로운 길을 열어가겠다는 목표다. ‘광주路’는 지역공공정책연구소를 설립·운영하고, 시민교육센터, 지역공공데이터센터, 공익활동가공제조합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김경민기자 kki@

광주 보청기난청센터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보이지 않는 보청기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362-3336 (광주 돌고개역 2번출구 대형약국 3층)

희망은 언제나 있습니다
법인회생
법인회생이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회사·병원 등 법인에 대하여 채권자·주주·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법인의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대표변호사 곽민섭
• 광주지법 해남지원 지원장·부장판사
• 광주지방법원 판사(회생 및 파산업무)
• 특허법원 판사
• 법학박사(한양대학교)
• 경제학석사(서울대학교)
• 세무사
함께 이루는 밝은 세상
법률사무소 희망미래 062-228-2266 / 010-3608-8897